

칭주 너그네

CCC 오진탁 김은경 목사의 기도편지 2025-1호

감사와 행복 /이해인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이 사역의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역 동역자님의 귀한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사역 동역자님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 교회 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사역 동역자님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설에 CCC 오진탁 김은경 올림



2025년 1월 이렇게 지냈습니다.

2 목	CCC 2025년 시무식		<p>2025년 CCC 본부 대강당에서 새해 시무예배를 드렸습니다.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께서 우리가 해오던 사역을 올해는 Doing SMART(세상을 이해하고(Study), 주님을 향해 나뉘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며(Undivided Mind), 철저히 훈련을 통해 준비된 삶을 살고(Always be prepared),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Rest), 지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하는 삶(Transformed)을 멈추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시무 예배가 끝나고 선후배 간사들과 사진 한 장 남김으로 새해 첫 역사를 기록했습니다.</p>
3 금	부서 기도회 신임 간사 환영식		<p>새해 첫 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중보기도와 부서에서 계획한 새로운 사역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뢰하며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부서로 한 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간사님을 위한 환영의 의미로 점심을 함께 먹고 커피 타임을 가지며 간사님의 삶과 사역, 꿈, 기대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 오면 묘하게 팀워크에 변화가 나타나는 데 기존의 간사들과 새로 오신 간사님이 최고의 연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p>



<p>6-10 월-금</p>	<p>박사학위 논문 합숙(영종도)</p>		<p>싱가포르의 East Asia Theological Seminary 교수님 두 분(부부)께서 저희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도와주시기 위해 한국에 오셔서 인천 영종도에 있는 ABC Stay에서 1주일간 합숙을 하며 각자가 정한 논문을 쓰고, 개인별 맞춤 지도도 받고, 논문 심사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지를 안내받았습니다. 한 분은 저의 논문 Supervisor 여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의 경건 시간을 가졌고 숙소 주변의 여러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교수님들과 3분의 선배 간사님들을 모시고 각자의 논문을 발표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70대 중 후반인데도 더운 나라에서 추운 겨울에 한국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시며 역량 있고 경건한 기독교 지도자 배출을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을 보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12 주일</p>	<p>이발</p>		<p>1년에 4번 이발을 하는 데 저는 미용실이 아닌 동네 이발관을 이용합니다. 들어갈 때는 추남, 나올 때는 미남이 되는 신기한 것입니다. 여기는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혼자 운영하시는데 젊을 때 TV에 눈 감고도 이발하시는 달인으로 출연하셨고 간판은 신세대 이용원이라 재미있습니다.</p>

<p>12 주일 저녁</p>	<p>직장 전도의 원리와 방법 강의</p>	 <p>왜 직장 전도인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시대적 사명 종교개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Greg Ogden은 "첫 왕신도의 손에 성경을 들려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의 손에 사역을 들려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이 있는 곳에서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 믿음을 증명하는 현장 직장 안에서 신앙과 삶의 하나로 연결되는 신명일지 모르나, 이는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주위 사람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 전도의 최적 장소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피로해석을 나누며 자연스레 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같은 "공동체"의 필요를 이해하고 복음을 전달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p>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동역하시는 한국 직장 선교대학의 이재웅 목사님께서 직선대 훈련 과정 개편에 맞춰 새로운 전도 훈련용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셔서 “직장 전도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강의안을 만들어 드렸고, 그 강의를 직선대 훈련 간사님들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의 직선대 훈련원에서 담당 간사님들이 제 강의안과 강의를 본보기로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CCC와 직선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연합함을 감사합니다.</p>
<p>14 화</p>	<p>CCC 최고선임 여간사님 인터뷰</p>	 	<p>학위 논문을 쓰면서 주로 남자 간사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했으나 자매 간사님들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은퇴 나이의 간사님 중 여간사님이 몇 분 안 되셔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여간사님의 견해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에 74년에 간사로 헌신하셔서 작년에 간사 50주년으로 은퇴하신 올해 72세인 김경란 간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독신으로 평생 주님을 위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오신 간사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그리고 한 개인의 헌신과 희생이 교차하며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CCC의 역사와 신앙의 타피스트리(Tapestry)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김준곤 목사님처럼 살아가시려는 간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p>

<p>16 목 저녁</p>	<p>서울대 병원 신우회 새해 모임</p>		<p>오전에 강원도 횡성으로 카이캠 실사를 갔다가 저녁에 서울대 병원 신우회 새해 첫 모임 교제에 함께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이 모임을 이끄셨던 이미숙 전 수간호사 선생님의 섬김으로 대학로의 식당에서 성경 공부에 나오지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밥을 먹으며 교제하고 식사 후에는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달라 연속적인 참여가 어려운 현실에서도 계속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또 은퇴하셨지만,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선생님들 덕분에 서울대 병원 신우회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p>
<p>17 금</p>	<p>부서 모임</p>		<p>우리 부서는 한주는 소그룹으로, 또 한 주는 전체로 모임을 합니다. 소그룹은 “교회 개척 연구실행 소그룹”과 PCS 훈련“ 소그룹으로 나눠 각자 원하는 소그룹에 소속해 자기 개발과 교회 개척 자료 만들기, 부서 교육 훈련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체 모임 때는 주로 기도회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우리 부서 사역을 위해, CCC와 한국 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고 있다가 끝나고 식사할 때쯤 기도회와 회의 때 사진을 안 찍었다며, 밥 먹는 사진을 찍다 보니 부서 모임 제목에 밥 먹는 사진을 올리게 되네요.</p>

21 화	어머님 차상위 의료보험 혜택 신청		<p>어머님께서 인천 부평의 동생 집에 오셔서 부평 성모병원에서 위암 수술 정기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MRI 결과 위는 아주 깨끗하다고 하셔서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위암 수술과 치료 때문에 어머니는 희귀질환 난치병 산정 특례 혜택을 받아 약값이나 병원비의 10%만 부담해 오시다가 올해 2월 28일자로 그 혜택이 만료되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치매 진단받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어머니 고향(경북 상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더니 6개월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퇴근한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고깃집으로 가서 맛있는 저녁을 사줘 어머니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p>
22 수	순론 노트 영어판 작성 모임		<p>1971년에 김준곤 목사님께서 만든 민족 복음화 전략을 담은 순론 노트를 신세대도 읽고 이해하기 쉽게 문체를 바꾸어 2023년 새로 출판했는데 이것을 영문판으로 만들기로 해서 캠퍼스 사역 전략팀 김문수 간사의 요청으로 저와 GCTC (신입 간사 훈련원) 김현지 간사, 대만계 미국 간사 SAMUEL 이렇게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왜 이걸 만드는데 대한 근본 질문부터 어떻게 만드는데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나눴고 한국 CCC 미국 간사에게 순론 영어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p>

24 목	부서 소그룹 모임(교회 개척 실행 연구팀)		<p>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이 소그룹은 올해 새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서 팀장인 지구정 간사가 하다가 새로 박신철 간사가 팀장을 맡아 첫 모임을 했습니다(사진 아래 맨 오른쪽 간사님). 이번에는 협동 간사인 한동현 목사(남원 인월에서 상추 농사지으며 교회 개척하는 목사)의 농사 준비와 교회 개척 진척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각자의 기대와 소망을 말했고, 앞으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전체 일정도 잠기로 했습니다. 월별 독서 토론 (다음 달에는 세들 백 교회 개척 사례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교회론 공부와 교회 개척 방법 사례 수집 등을 나눌 것입니다.</p>
	이정수 간사 만남		<p>작년까지 우리 부서에 있다가 올해부터 새로운 일터 사역을 위해 다른 부서로 옮겨 간 이정수 간사님이 제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해 CCC 본부 근처의 아델라 베일리에서 연어 스테이크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간사님은 직장 선교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 신우회 활성화에 관한 책을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와는 1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데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도전받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직장 관련 네트워크와 인맥을 이 간사님에게 연결해 간사님이 더 많은 사역 기회 창출과 영향력 확대를 하도록 돕습니다.</p>

26-27 토-주일	복통-예배 못 감		제가 1987년 복막투석 수술, 1991년 1차 신장 이식, 2003년 장폐색 수술, 2006년 2차 신장 이식을 받은 후부터 거의 35년을 복용해 온 면역 억제제와 다른 여러 약물 부작용으로 가끔 느닷없는 복통(주로 가스가 차면서 구토합니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증상으로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통증과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며 토하며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아내 혼자 갔습니다. 이런 아픔이 잘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29 수	설날 동생 집에서 모임		오랜만에 울산의 둘째 동생 가족을 제외한 형제 가족이 인천 동생 집에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셔서 올해는 거의 10시간 가까이 걸리던 귀성 귀경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막내동생의 가족도 베트남에서 들어왔는데 그 두 딸과 작년에 결혼한 바로 아래 동생 큰아들 내외가 가장 큰 아버지 큰 엄마인 저희 부부에게 세배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겐 세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머니의 강권에 어머니께서는 세배드리지 못하고 대신 세뱃돈만 드렸습니다. 이번 설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동생들과 약속을 해서(동생들이 불신자라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떡국을 끓이고 배추전(경상도 음식)을 부쳐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은 가족 간의 유대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일 듯합니다.
27-30	집중 논문 수정		이번 달은 공적 업무 외의 모든 날에는 논문을 최종 수정

	보완		<p>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 연휴 기간에 논문을 고치고 또 고치고, 읽고 또 읽고 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적어도 2월 초까지는 논문 심사를 신청해야 담당 교수님들(First readers), 그리고 신학교 학장님(Second Reader), 그리고 최종 심사관 2분(Final Reader)의 승인이 나와 5월경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을 마쳐서 2월 초에는 지도교수님께 보내 심사를 신청하려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서울대 병원 신우회 성경 공부		<p>1월에는 서울대 병원 신우회 성경 공부를 두 번 했습니다. 제 사정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마지막 주는 설 연휴라 쉬었습니다. 온종일 긴장한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생명을 살려 나가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저도 영이 살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 이 시간에 오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p> <p>“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 6:7)</p>	

<p>토요 성경 공부</p>		<p>주말이라 쉬고 싶고 느슨해지고 싶은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나병진 조예슬 부부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 28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공부해 왔는데 야곱의 꿈수와 신앙 간의 전진과 퇴보가 어찌나 제 모습과 닮았는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삶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네 삶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합니다.</p>
<p>KAICAM 실사</p>		<p>1월에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배웠습니다.</p> <p>1월 6일은 서울시 은평구 아이노스 합창단(한영애 대표), 16일 강원도 횡성군 치유의 꿈이 있는 교회(박민석 목사), 20일 강원도 평창군 한국 뉴모라비안 커뮤니티(박호종 목사), 23일 충남 천안시 원바디 처지(김반석 전도사)를 찾아뵈었습니다. 이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함으로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p> <p>“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1-3)</p>

기도 제목

1.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부부가 주님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2. 학위 논문을 최선으로 정리해서 잘 제출하게 하시고 그 후 논문 심사위원들의 수정 요청도 잘 수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3. 어머니의 건강이 하루하루 잘 유지되게 하시고(망상 증세가 줄어들게 하소서), 동생들과 그들의 가족 모두 구원을 얻게 하소서.
4. 올해 부서 안에서 계획한 사역 일정을 잘 감당하고, 카이캄과 나눔교회에서의 맡은 역할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5. 지금까지 살아있음이,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운동과 식이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의 책임은 제게 있으니 봄이 오면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소서. (건기)

2024년의 신실한 동역 덕분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2025년 기도하며 기대하는 일들 다 이루어져서 삶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잘 이겨내게 되시길 기도하며 다시 소식 올릴 때까지 살롱으로 인사 올립니다.

2025년 1월 31일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사역하는 동역자 오진탁 김은경 간사 올림